

## V. 尖端 産業 動向

超엔低와 코스트 절감 노력으로 토요타 자동차는 과거 최고의 경상이익을 향유할 것으로 전망됨

■ 토요타 자동차, 經常利益 급증

○ 국내 시장점유율 정체

- 국내 시장점유율 4割을 목표로 적극적인 판매 공세를 펼치고 있는 토요타 자동차는 부품 관련 회사의 火災와 경쟁사들의 맹렬한 추격으로 금년도 목표 달성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
- 지난 2월에 토요타 계열인 아이신精機의 브레이크 부품 공장의 화재로, 약 7만 대의 생산 차질이 발생함
- 혼다(本田)와 닛산(日産)자동차의 판매 호조로 토요타 자동차의 Share가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가고 있음

○ 수출 채산 크게 호전

- 超엔低로 수출 채산성이 크게 호전되어 97年 3月期の 경상이익이 6000억 엔(前期對比 76%增)을 돌파
- 토요타의 경우, 달러가 1엔 변동하면 연간 150억엔의 경상이익 변동이 발생함
- 최근의 급속한 엔低가 지속된다면 토요타 자동차는 엄청난 이익을 향유할 것으로 보여짐
- 현재의 환율 수준만 유지되어도 98年 3月期 경상이익이 7000억엔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
- 과거 최고의 경상이익(90年 6月期の 7338억엔)을 更新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음

○ 主因은 엔低와 코스트 절감

- 국내 시장 점유율은 정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적이 크게 향상되고 있는 주요 원인은 엔低로 수출 채산성이 호전되고, 미국의 호경기를 배경으로 일본차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임
- 최근 120엔대의 超엔低로 수출 채산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음
- 미국 경기의 호황으로 미국내 일본차의 판매가 急伸張하고 있음
- 이는 수년전부터 추진해온 토요타의 코스트 절감 노력의 결실이라고도 할 수 있음 (「週刊東洋經濟」, 97.3.22)

■ 디지털 방송 시대의 주도권을 둘러싼 TV 對 PC의 대립

디지털 방송을 계기로 그간에 있어 오던 TV와 PC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음

- 디지털 방송 계획과 양대 진영의 입장
  - 美 연방통신위원회, 지상파 디지털 방송 계획 확정
    - 기존의 방송사에게 채널을 무상으로 할당
    - 1998년부터 디지털 방송을 시작하여 2006년에는 모든 방송을 디지털화할 계획
  - 가정의 핵심 정보기기로 자리잡기 위해 TV 진영과 PC 진영간에 경쟁이 계속되고 있음
    - TV 계열: 가격, 화질, 사용의 편리성에서 우위
    - PC 계열: 쌍방향성, 다양한 활용성에서 우위
  - 디지털 방송 표준 경쟁은 TV 진영이 1차 승리
    - 연방통신위원회는 디지털 방송을 앞당기기 위해 방송사들이 주장한 18 가지 표준을 선정함
    - 이 표준은 PC에서 시청 불가능한 기술적인 내용을 부분적으로 포함하고 있음

양 진영은 신규 사업 진출과 제품 개발로 대응하고 있음

- 양 진영의 새로운 전략
  - 표준화 전략에 실패한 마이크로소프트社는 웹TV社를 인수하여 방송 산업 진출을 확대함
    - 기존의 MSNBC와 결합한 새로운 방송망 구축으로 인터넷과 연계할 방침임
  - 방송사들은 인터넷 방송을 확대하고, TV 제조업체들은 쌍방향 TV 기술을 개선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음

양 진영의 대립은 곧 수그러들과 전자산업의 디지털화가 더욱 촉진될 전망이다

- 양 진영의 대립은 곧 수그러들 전망
  - 어느 기업도 한 진영에만 간여하고 있는 기업은 없음
    - 주요 TV 제조업체들과 PC 제조업체들, 방송사들과 소프트웨어社들은 각각의 분야에 부분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크게 타격받지 않을 것이며 대립은 수그러들 것임
  - 결국, 선택은 소비자의 몫으로 남게 되며, 양 진영간의 대립과 발전으로 전자산업의 전반적인 디지털화가 촉진될 것임  
(BUSINESS WEEK, 1997 4/21)